



서울 등촌 국민학교
교사 김국현

“우유를 먹이세요”

지난 가을 어느날, 급식시간에 있었던 일이다.

저학년 한 어린이가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양호선생님! 저희 선생님이 빨리 좀 오시래요.”하며 내 손을 잡아 끄는 것이었다. ‘무슨 사고가 났나?’하는 걱정이 앞서면서 놀란 가슴을 안고 급히 교실로 쫓아 들어갔더니 아이들 모두가 우유하나씩을 들어올리고는 “선생님!내우유가 이상해요.”

“내 것도 냄새가 나요.”

“내 짙은 우유를 마시고 배가 아프대요.”하며 야단들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 ‘우유가 상했나보구나’하며 한 아이가 들고있는 우유를 빼앗다시피하여 맛을 보았다. 그러나 너무 급히 삼킨 탓인지 별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아침에 냉장실에서 검수를 할 때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어쩐 일일까?’하며 계속해서 몇 개의 우유를 하나 하나 세밀하게 맛으로 확인해 보았으나 역시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담임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한 어린이가 우유를 마시다가 우유가 이상한것 같다고 말하니까 모든 아이들도 덩달아 너도 나도 이상하다고 아우성들이어서 덜컥 겁이 나는 마음에 나를 불렀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직접 우유를 먹어보이며 아무 이상이 없으니 마시기를 권하였으나 아무도 우유를 입에 대려고 하지않았다. 할수 없이 이번엔 배가 아팠다는 아이의 우유를 받아 마시고는 계속해서 그 아이의 짙어 들고 있는 우유마저 마셔가며 설득을 하자, 그제서야 아이들은 천진하게 웃으면서 우유를 마시는 것이었다.

담임선생님과 나는 난데없는 아이들의 호들갑에 멧적은 웃음을 나누는 수 밖에 없었는데, 그날 양호실로 돌아온 나는 부리나케 소화제를 먹지않을 수 없었던 것은,내 일찌기 그토록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우유를 마셔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오랫동안 몸담았던 병원에 나이팅게일의 하얀 캡을 벗어놓고 학교로 발령을 받아 처음 부임하던 날, 가파른 학교 언덕길을 오르며 유난히도 숨이 가빴던 까닭은 과연 ‘새로운 학교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흥분이 앞선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팻말이 붙어있는 교문을 들어서며 운동장 가득 활기있게 뛰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되자, 어느새 나는 나에게 부여된 업무 -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과 질병예방에 열과성을 다해 충실하겠다’하는 힘찬 각오로 두 주먹을 꼬옥 쥐고 있었다.

아울러 약이나 바르고 붕대나 매어주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진정 가슴과 가슴으로 따뜻하게 통할 수 있는 ‘양호엄마’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며…….

요즘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영양섭취 상태가 매우 높아져 국민 체위가 증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선진외국들과 비교해보면 체격등위가 훨씬 뒤떨어진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어린이들도 선진 여러나라의 어린이들처럼 튼튼하고 미끈한 체격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종합 영양식품인 우유급식을 권장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 학교는 국가보조에 의한 저렴한 가격의 우유를 급식하고 있다.

우유는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완전식품이라고 한다. 또한 우유를 매일 마시면 발육상태가 양호해져서 키도 크고 두뇌발달도 촉진되어 머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영국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경은 “한 나라의 장래를 위한 가장 안전한 투자는 어린이들에게 우유를 먹이는 일이다.”라고 말했다지 않는가?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유 소비가 많은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구미 여러나라의 평균 수명은 73세 이상인 것에 비하여, 우유 소비가 적은 인도, 이디오피아, 나이지리아 등 후진국 국민 평균수명은 38~41세라고 한다.

우유 소비량이 일본의 1/3밖에 안되는 14세 우리나라 어린이의 키의 경우, 같은 또래의 일본 어린이에 비하여 평균 5cm정도나 작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국민 평균수명의 높고 낮음이나 국민 체격의 크고 작음이 그나라 우유 소비량과 비례하고 있음을 볼 때 양질의 영양소를 고루 갖춘

식생활의 균형이 국민 체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영양면에서 거의 완벽한 우유는 학령기 어린이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영양식품으로서 꾸준히 마시기만 하면 우리 어린이들도 선진 외국의 어린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볼 때 장차 이 나라를 젊어질 우리의 꿈나무들에게 사랑과 우유를 함께 섞은 급식을 계속 시키는 것만이 양호교사인 나와 함께 우리 어른들의 임무일 것이라고 말한다면 너무 과장된 표현일까?….

우리학교의 1학년 ○반은 언제나 100%의 우유급식을 하고 있다.

담임선생님의 각별한 열성으로,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여 우유의 우수성을 자세히 인식시키면서 담당학급의 한 아이도 빠짐없이 우유를 마시도록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야말로 미래를 위한 전인교육의 일부분이 아닌가하는 뿌듯한 고마움을 느낀 일도 있다.

지난 여름,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학생 반장단 야영수련회에 보건담당 요원으로 참석했던 일이 있었다.

서울 시내 여러학교에서 모인 어린이들 모두가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키가 크고 흰한 모습의 우리학교 어린이들을 보면서 ‘역시 나도 제 새끼 예뻐하는 고슴도치일 수 밖에 없구나’하며 속으로 웃고있는데 모든국민학교 인솔교사가 가만히 다가와서는 “선생님! 같은 연령의 아이들인데 선생님학교 어린이들은 왜 저렇게 커요?”하며 묻는 것이 아닌가?

나의 작은 힘과 정성이 그새 아이들하나 하나에 미쳤을 리는 없겠으나 그래도 내판에는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인것도 같아 기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께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유를 많이 먹도록 권장하셔요, 남녀 노소 모두에게 보약이 될테니까요”